

第 1 主題 討論要旨

第 1 主題는 朴東緒 教授(서울大)의 司會로 徐元宇 教授(서울大)의 主題發表와 李鳴九 教授(漢陽大), 朴鈺忻 次長(法制處)의 指名討論 및 이에 대한 發表者의 答辯 및 自由討論의 順으로 進行되었다. “韓國에서의 立法過程의 理念과 現實”이라는 題目의 主題發表에서 徐元宇 教授는 먼저 美國式 概念으로서의 立法過程 내지 立法學의 意義와 유럽 및 美國에 있어서 立法學이 法解釋學 보다 늦게 發達된 理由를 歷史적으로 概觀하였다. 이어 徐教授는 政黨·壓力團體·輿論 등이 立法過程에 미치는 影響을 우리나라의 現實의 事情과 관련시켜 分析하였으며, 現代國家의 立法過程에 있어서 行政官僚의 役割增大와 그 長·短點을 지적하였고, 結論으로서 現代國家에 있어서 法律의 氾濫 내지 ‘過剩化된 規範化’(Übernormierung)의 問題와 이러한 現象 속에서 法治國家의 原理를 維持하고 法律의 質을 向上시킬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할 必要性을 提示하였다.

指名討論에 나선 李鳴九 教授는 오늘날 國家機能의 擴大와 더불어 個人的 權利保護 보다 行政의 便宜를 위한 法律의 증가와 이에 따른 法律의 權威失墜, 行政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立法에 있어서의 矛盾·衝突에 의한 國家豫算浪費, 黨利·黨略에 치우치는 政黨의 立法關與와 이에 따른 現實의 問題點, 立法이 國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 등의 問題點을 지적하고,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 法의 適用·解釋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立法에 있어서의 關係機關의 協調, 國民의 利益保護, 立法豫告制의 活性化, 國民의 意見開陳機會의 確保, 國會의 通法府化를 止揚하고, 國會議員들이 黨利·黨略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各界各層의 利益을 代辯함으로써 立法에 있어서 國會機能의 回復 등의 改善點을 지적하였다.

朴鈺忻 次長은 그의 實務經驗을 토대로 하여 徐教授의 主題發表에 대해 論評을 하였다. 여기에서 朴次長은 壓力團體들이 立法에 있어서 否定的 影響을 미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 肯定的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것, 오늘날 科學의 發達과 社會의 複雜化로 인하여 遺傳工學關係法, 貿易法 등의 영역에 있어서는 行政官僚들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行政官僚들의 立法에서의 役割을 지나치게 強調하는 것은 困難하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國會의 專門委員會, 諮問委員會 기타 委員會의 기능을 過小評價해서는 안된다는 것, 國會의 專門委員이나 행정관료에 의한 立法의 歪曲을 지나치게 誇張해서는 안된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 朴次長은 우리나라의 立法豫告制에 대해 지나친 酷評만을 加할 것이 아니라, 그 制度의 缺點을 改善하여 올바른 方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건전한 批判을 해 줄 것과, 法律의 氾濫 問題와 관련하여 立法의 증가로 인해 立法過程에 있어서 技術的인 問題點들이 있다는 것은 認定하지만, 外國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法이 必要하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또 家庭儀禮準則 등의 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法律로 規律할 수 있는 領域은 外國의 그것과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이러한 指名討論者들이 지적한 問題點들에 대해 發表者인 徐教授는 立法節次의 문제, 議會의 活性化 問題, 壓力團體와 立法過程의 問題, 행정관료의 立法에서의 役割 問題, 國會의 各種 委員會의 기능 問題 등에 대해 自身의 見解를 밝혔다.

이어서 위의 問題點들에 대한 몇몇 參席者들의 質問과 意見發表 및 이에 대한 發表者·討論者들의 答辯이 활발하게 進行되었다.